

1950년대 오락잡지에 나타난 대중소설의 판타지와 문화정치학^{*} —『명랑』의 성애소설을 중심으로

김현주^{**}

1. 1950년대 오락잡지의 출판 지형
2. ‘쎄븐·S’의 전략, 성적 공론장으로서 『명랑』
3. 발견과 시선의 중층성과 성적 판타지
 - 3-1. 여성의 자기 발견과 성적 결정권
 - 3-2. 관음중적 시선과 타자화된 여성
4. 성애소설의 성적 판타지와 문화정치학

국문요약

근대 이후 잡지는 상업성을 기반으로 대중 독자의 욕망을 충족시키면서,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문화 정치학을 생산한다. 1950년대는 오락잡지가 출판 시장과 대중 독자를 광범위하게 접유하게 되는데, 이 시기 출간된 오락잡지 중 『명랑』은 성적 공론장으로서 잡지 정체성을 구성한다.

특히 1950년대 『명랑』에 게재된 성애소설은 20대 청춘 남녀를 타겟 독자층으로 하여 성적 판타지들을 담론화하고 있으며 그것을 대중화시키면서 일정한 문화적·정치적 효과를 발생시킨다. 그런데 1958년 전후로 그 방식의 미묘한 변화가 생긴다. 즉 1950년대 중반의 성애소설에서

* 이 논문은 2012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2S1A5A8022031)

** 한양대학교 조교수

여성들은 가족 '안'과 '밖'의 경계를 넘나들며 성적 자아를 '발견'하고 성적 결정권을 행사하는 능동적인 주체로 재현된다. 그러나 여성 스스로 성적 일탈의 공포를 감지하고 자신의 성적 욕망을 자율적으로 조율하고 가족 '안'에 안착한다. 그 결과 독자들이 성애소설의 성적 판타지를 불안감 없이 향유하게 된다. 반면에 50년대 후반의 성애소설에서는 남성만이 성적 결정권을 가진 주체로 재현된다. 그 결과 여성은 가족 '안'/'밖'으로 자연스럽게 구획하고 여성의 성 규범만을 강제하는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를 더 강력하게 견인해 낸다. 이에 따라 여성의 성적 욕망은 조롱의 대상이 되고, 가족 '안'의 남성에게만 수렴되는 지향성을 가지는 것이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것임을 무의식적으로 수용하도록 조정한다.

이와 같이 50년대 중반 『명랑』이 성을 자유와 도전의 정신으로 인식했던 것과는 달리, 국가 주도의 문화 관리와 공조하면서 점차 위조된 현실과 합성된 이미지의 오락적 소비물이 되고 성적 욕망에 내재된 자유주의 정신마저 소거해 간다. 이에 따라 『명랑』의 성애소설은 성을 상품화하고 소비하는 키치적인 오락물로 스스로의 정체성을 구성하고, 근대 이후 취미의 품격을 고양했던 소설 읽기를 저급화시키는 데 한몫한다.
(주제어 : 1950년대, 오락잡지, 『명랑』, 독자, 성애소설, 성적 판타지, 문화정치학, 성적

공론장, 자기 발견, 성적 결정권, 문화 관리)

1. 1950년대 오락잡지의 출판 지형

1950년대 출판시장은 전후 원조경제와 해방 이후 교육열에 의한 문자해독층의 증가로 되살아나기 시작한다. 51년 5월 『천지』의 창간에서 60년 4월 『한국시단』까지 약 180여 종의 잡지가 1950년대에 창간된다. 해

방 이후 창간된 잡지 50여종까지 합하면, 1950년대는 총 230여종의 잡지가 발간되어 치열한 출판 경쟁을 벌인다.¹⁾

1950년대에 발간되고 있던 『혜성』, 『야담』, 『삼천리』, 『야담과 실화』, 『이야기』, 『홍미』, 『실화』, 『명랑』, 『아리랑』, 『화제』 등의 오락잡지는 최소 3만에서 최고 9만부를 발행할 정도로 광범위한 대중적 인기를 구가한다.²⁾ 이는 대학생 독자층을 확보하고 있던 교양지 『사상계』나 『여원』의 2만부와 뚜렷한 격차를 보인다.³⁾ 또한 “이때 창간된 『아리랑』, 『명랑』 등의 대중 오락잡지는 중단된 적도 있었지만, 『사상계』, 『현대』와 같은 교양잡지보다 판매부수도 많고 1980년 이후까지 지속적으로 발간될 정도로 고정 독자층을 확보”⁴⁾한다. 이처럼 독자적인 재생산 기반을 구축한 1950년대 오락잡지는 높은 시장 점유율과 출간의 지속성을 유지한다.⁵⁾

1) 1950년대 잡지는 대부분 개인 출판 자본으로 발간되었기 때문에, 독자적인 재생산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하나의 출판사에서 여러 종의 잡지를 발간하여 치열한 출판 경쟁을 벌였다. 삼중당은 『아리랑』(55.3), 『화제』(57.10), 『소년소녀 만세』(56.1), 『소설계』(58.6) 등을 발간하고, 희망사는 『월간 희망』(50.2), 『여성계』(52.7), 『문화세계』(53.1), 『야담』(55.7), 『주간희망』(55.12.26)을, 학원사는 『학원』(52.11), 『여원』, 『진학』(55.12)을, 신태양사는 『신태양』(52.8), 『실화』(53.11), 『명랑』(56.1), 『소설공원』(57.12)을 발간하였다. 김현주, 「1950년대 잡지 『아리랑』과 명랑소설의 ‘명랑성’ : 가족서사를 중심으로」, 『인문학연구』 43권, 2012, 175쪽.

2) 『사상계』, 『현대문학』, 『새교육』, 『아리랑』, 『학원』, 『여원』, 『실화』까지 모두 1백호 가 넘는 잡지였다. “1955년 10월에 창간호가 나온 『여원』은 최근 5만부를 내고”, 『학원』은 “올해 11년의 연륜을 새겼다.” 「길어지는 잡지의 수명-백 호 넘은 것만 6종」, 『경향신문』, 1963.2.16, 5쪽.

3) 「책을 읽지 않는 가을」, 『경향신문』, 1957.10.24.

4) 김현주, 「1950년대 잡지 『아리랑』과 명랑소설의 ‘명랑성’ : 가족서사를 중심으로」, 『인문학연구』 43권, 2012, 175쪽.

5) 50년대 말부터 대중 오락잡지는 “독자대중에게 영합하려고 갖은 노력을” 했으나 “너무도 많은 수가 경쟁”하다가 자멸하는 모순에 빠진 반면, “학술지 『사상계』가 환도 직후의 판매부수” 4배 이상 증가하면서 학술교양지의 시대가 열린다 「학술교양지발전 경향 대중오락지는 퇴세일로」, 『동아일보』, 1958.6.5.

1950년대 오락잡지의 흥행 성공은 구독 능력, 즉 독자의 경제적 여유와 취미로 오락물을 소비할 수 있는 독자층의 수효가 증폭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또한 사회의 규율과 대중의 욕구 사이에서 줄다리기, 즉 “권력은 미디어를 수단으로 대중을 지배에 ‘협력’하게 하고, 대중은 표상적 지식과 대중문화를 통해 자기지배(self-rule)”⁶⁾ 방식을 재현한 것도 그 요인이 된다. 그 결과 오락잡지의 문자 매체를 통해 산출하는 취향이나 의미는 실제로는 지식·권력을 소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런 점에서 오락잡지는 단순히 오락물을 소비하는 장이 아니라 정치적이고 문화적인 효과 즉 문화정치학을 산출하는 매체인 셈이다. 이러한 오락잡지의 정체성이 뚜렷이 드러난 시기가 1950년대였고, 그것을 성애(性愛)적 코드의 공적 공론장 역할을 한 잡지가 『명랑』이었다.

1956년 1월 『명랑』⁷⁾을 창간한 신태양사는 단행본과 잡지 등을 발행하여 언론과, 교양, 문예, 취미 등의 내용으로 1950년대 출판시장에서 큰 역할을 한다.⁸⁾ 대중지 『실화』가 뜻밖에도 성공하자, 『아리랑』⁹⁾, 『월간 희망』¹⁰⁾ 등의 오락잡지 시장까지 점유하기 위해 『명랑』을 창간한다.

6) 천정환, 「『삼천리』와 근대 잡지의 새로운 시대」, 『식민지 근대의 뜨거운 만화경』,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11, 33쪽.

7) 『명랑』은 1956년 1월 창간되어 1992년 3월 종간까지 근 35년간 출간된다. 그 사이 1980년 7월 정부의 사회정화시책으로 폐간되고, 1988년 2월(발행자 : 명랑사)에 복간 되었다가 92년 3월에 다시 폐간된다.

8) 신태양사는 『명랑』 발간 이전에 명랑소설 『애정이중주』(1955.11), 『올챙이』 기자 방랑기』(1955.7) 등 단행본을 출간하는 한편, 『신태양』 등의 각종의 잡지를 발간하였다. (각주 1) 참조) 1960년대에는 여성잡지 『여상』(62.11)을 추가로 발간할 정도로 5-60년대 출판시장에서 큰 활약을 한다. 그러나 무리한 편집경영과 치안당국의 풍기 단속으로 미경출판사에 발행권을 이양한다.

9) ‘읽는 잡지’를 표방한 『아리랑』은 삼중당에서 1955년 3월에 창간된다. 1967년 11월 아리랑사로 판권이 넘어갔다. 1980년 7월에 정부의 사회정화시책에 의해 폐간, 1988년 7월에 복간, 1992년 3월에 다시 폐간된다.

10) 『월간 희망』은 창간 초기에는 ‘청년학생계몽지’를 표방하였으나(『광고』, 『동아일보』, 1950.2.7) 점차 오락잡지로 변신하여, 『돈판에게 짓밟힌 여인군』 등의 선정물들로

『명랑』은 오락잡지의 후발주자로서, 치열한 출판시장에서 생존하기 위해 차별화된 편집 전략이 필요했다. 그래서 “보는 잡지…… 이것이 우리들의 염원입니다. 딱딱하고 잘디잔 지금까지의 잡지의 상식을 벗어나 시각적으로 시원한 잡지”를 기획한다.¹¹⁾ 기존의 오락잡지가 표방한 ‘읽는 잡지’와는 차별성을 분명히 둔 것이다. 배우나 스포츠인들의 사진이나 화보, 삽화 등 볼거리를 풍부하게 배치하고, 읽을거리로는 성애소설을 전략적으로 배치한다. 읽을거리로 고안된 성애소설은 문학을 차용한 성 소비 상품으로 『명랑』이 특별히 기획한 것으로, 일상 대중들의 성적 판타지를 담론화하고 그것을 사회체(corps social)¹²⁾ 표면에 분산·정착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일정한 문화·정치적 효과를 발생시킨다. 성애소설은 성애에 집중하여 성적 판타지를 유발하는 다양한 기제를 활용하는 한편 성적 욕망을 때로는 자유나 도전의 정신으로 때로는 유희나 오락의 대상으로 인식하게 한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특정한 이데올로기를 지지 또는 저항, 은폐하는 문화 정치학적 기능을 무의식적으로 일관되게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¹³⁾ 양가적 태도로 『명랑』은 성에 관한 특정한 관념을 강화(enhance)하거나 낙후한(obsolete) 것으로 만들 수도, 또는 역전(reverse)시키거나 과거의 것을 재생(recovered)시키는 기능을 한다.¹⁴⁾

따라서 이 글에서는 1950년대 오락잡지 『명랑』에 수록된 성애소설을

1) 『명랑』과 경쟁한다. 「여적(余滴)」, 『월간 희망』, 1955.3, 234쪽.

11) 「꾸미고 나서」, 『명랑』, 1956.10, 180쪽.

12) Michel Foucault, 이규현 역, 『성의 역사 1-앎의 의지』, 나남, 1995, 10쪽.

13) 푸코는 16세기 아래 성 담론은 성적 욕망의 확산과 정착에 기여해 왔다고 주장한다.

Michel Foucault, 이규현 역, 『성의 역사 1-앎의 의지』, 나남, 1995, 33쪽.

14) 맥루한은 새로운 기술/미디어가 기존의 가치/규범을 개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 낙후함, 역전, 재생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주장한다. Marshall and Eric McLuhan,

Laws of media: the new science, University of Toronto Press, 1988, pp. 7-8.

중심으로 성적 판타지를 구현하는 방식을 살펴봄으로써, 성적 판타지와 지배 권력 간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일정한 권력 장치가 조성되고 안착되는 과정을 관찰하게 될 것이다.¹⁵⁾ 성애소설을 살펴보기야 앞서 『명랑』이 1950년대 성적 공론장이 된 배경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2. '쎄븐·S'의 전략, 성적 공론장으로서 『명랑』

1950년대 대중잡지의 현재를 진단하는 자리에서, 『신태양』의 편집장인 홍성유는 “잡지 운영이란 하나의 혈투에 가깝다”¹⁶⁾고 표현할 정도였다. 즉 “출판계 특히 월간잡지들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중에서도 대중잡지들의 발행은 그 부수에 있어서도 일찍이 출판계에서 보지 못하였던 좋은 현상을 나타내고 있으나 한편 출혈적 경쟁은 직접 지면에도 반영”되었다. 예컨대 『명랑』의 “특집 「실연실태기」가 『희망』의 특집 「실연당한 분들의 수기」와 충돌하고 있다. 우연의 일치이기는 하겠지만 한국과도 같은 협소한 판매시장에서는 수난”이었던 것이다.¹⁷⁾ 『명랑』이 지가 상승이 극심했던 1957년에 잡지 값을 내린 것도 출혈 경쟁의 결과이다.¹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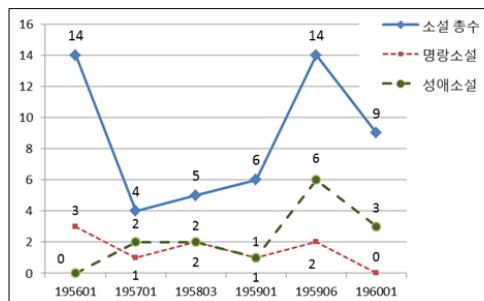
15) 김지영, 「1950년대 잡지 『명랑』의 '성'과 '연애'」 표상·기사, 화보, 유머란(1956~1959)을 중심으로, 『개념과 소통』 10호, 2012, 173-206쪽; 이봉범, 「1950년대 잡지저널리즘과 문학: 대중잡지를 중심으로」, 『상허학보』 30호, 2010, 397-454쪽.

16) 인용은 『희망』, 『실화』, 『신태양』, 『여원』, 『아리랑』, 『여성계』의 편집장들의 편집 방침, 운영실태, 당국의 출판정책을 설문한 내용 중 일부이다. 「대중잡지의 현재와 장래」, 『경향신문』, 1955.9.15.

17) 「대중잡지의 위기-하」, 『경향신문』, 1957.7.22.

18) 『명랑』은 1957년 1월부터 “새해 선물”로 300화이던 250화으로 책값을 내린다.

『명랑』도 출혈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고정 독자층 확보가 관건이었다. 『명랑』 창간호는 『아리랑』 등 다른 오락잡지들처럼 문학 중심의 편집 방침에 따라, 14편의 소설



[표-1] 『명랑』의 계재 소설 수

을 계재한다. 오락잡지가 우후죽순처럼 생겨 명랑소설을 확보하기 위해 혈안이 되자, 몇몇 잡지들은 추천제 등의 등단제도를 운영하여 소설과 작가를 조달했다. 그 결과 『아리랑』의 경우, 매호 12편가량의 소설을 지속적으로 계재하였고 그 가운데 절반가량은 명랑소설로 채울 수 있었다.¹⁹⁾

반면에 『명랑』은 창간 이후 소설, 특히 명랑소설을 확보하지도 못했다. (표-1) 참조) 연재의 방식을 취해 소설 지면을 확보하여 소설 계재의 지속성을 유지하려 하였지만, 미봉책에 지나지 않았다.²⁰⁾ 오락잡지 시장을 선점한 『아리랑』이나 『희망』을 추격하는 획기적이면서도 장기적인 전략을 고심하게 된다. 고심의 결과 『명랑』은 보는 잡지로 대호화판의 '지상최대의 명랑쑈!'을 벌이겠다고 기획한다. 여기에 '쎄븐·S' 편집

19) 『아리랑』 55권에 총 653편의 소설이 실리고 그 중 명랑소설은 204편이다. 김현주, 「1950년대 잡지 『아리랑』과 명랑소설의 '명랑성' : 가족서사를 중심으로」, 『인문학연구』 43권, 2012, 179쪽.

20) 1956년 10월과 11월에 실린 5편의 소설(천세옥의 「청춘화첩」, 조흔파의 「탈선사장」, 이규업의 「마음의 정조」, 정한숙의 「인현왕후」, 유호의 「고생문」)은 모두 명랑·연재소설이었다. 동일시기 『아리랑』에 역사소설만 연재된다. 특히 『아리랑』 1956년 10월호를 보면, 영화, 연극계 스타 화보 5쪽, 「이달의 히트송」으로 악보 2쪽과 13편의 소설이 계재된다. 또한 1956년 1월에는 소설 6편 중 연재소설은 3편이었으며, 1957년 1월호에는 소설 11편 중 연재소설은 단 2편이었다.

전략을 덧씌움으로써,²¹⁾ 선발주자를 추격하기 시작한다.²²⁾ ‘쎄븐·S’은 ‘Sex, Story, Star, Screen, Sports, Studio, Stage’를 의미하고, 이들을 집중적으로 감각적이고 관능적으로 다루겠다는 전략이다. ‘쎄븐·S’의 첫 S가 ‘성(Sex)’인 만큼 성적 코드에 집중하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표방한 셈이다. 이에 따라 지면 배치 방식도 달라지는데, ‘쎄븐·S’ 전략을 표방한 뒤 발간한 『명랑』 1956년 10월호 표지의 경우 ‘문제의 성 소설 마음의 정조’, ‘인기 배우들의 연애, 돈, 영화, 방송’이라는 선정적인 문구와 화보로 독자의 시선을 사로잡는다.²³⁾ 약 180쪽 분량의 잡지 중 영화, 스포츠 등 의 화보와 만화가 각각 약 20쪽, 가요 악보가 약 10쪽, 연재소설 5편이 배치되었다. 대부분이 ‘성’ 내지 ‘육체’ 등을 감각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기사들이었다.²⁴⁾ 56년에 영화 〈인생 역마차〉의 정면 키스신이 검열로 삭제된 것을 고려할 때,²⁵⁾ [그림-1]처럼 잡지에 ‘키쓰 씬’ 게재는 획기적이고 도발적인 사건이었다.²⁶⁾

산업혁명 이후 대중의 소비를 근간으로 표준화된 상품이 대량생산되 듯, 성적 판타지를 자극하는 성적 서술/감각도 잡지를 통해 대량생산된

21) 1956년 10월의 「편집후기」에서 ‘쎄븐·S’ 전략의 성공을 자찬하고, 11월호에는 그 전략을 상세히 설명한다. 「편집후기」, 『명랑』, 1956.11, 184쪽.

22) 『명랑』은 ‘쎄븐·S’ 편집전략으로 “『희망』 등의 오락잡지와 경합하는 형상”이 된다. (강영수, 「대중잡지의 위기 팔월호의 월평을 겸하여(하)」, 『경향신문』, 1957.7.22) 『주간 희망』 1956년 10월호에는 화보 2쪽에, 장덕조의 연재소설 「사랑의 풍속」, 「인민의 자본주의」, 손기정의 「욕망 방담」 등의 성애적 내용이 대부분이다.(『월간 희망』 1956년 10월호 확인 불가)

23) 『명랑』 창간에는 화보는 단 10쪽 정도(3-12, 20쪽)이고, 장덕조의 「아름다운 황혼」 유호의 「고생문」 등 17편의 소설과 최성수의 「청춘 부로지」 등 4편의 콩트와 김도태의 「고려 태조의 계보」 등 6편의 애담 등의 ‘읽을거리’로 채워졌다.

24) 「연애·돈·영화·방송」, 「피쳐·왕 한태동」, 「젊은 남녀의 구혼비결」 등이 게재된다.

25) 「인생 역마차는 왜 말썽이 났나」, 『주간 희망』, 1956.10.5.

26) 키스신이 면당 15개씩 2면에 배치되어 있다. 「명작영화 키쓰 씬」, 『명랑』, 1956.10, 11-13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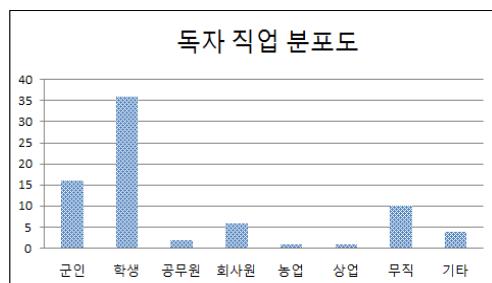


[그림-1] 「명작영화 키쓰 씬」 중 일부

다. 성적 판타지를 무한정으로 실현할 수 있는 비물질적이고 비육체적 공간으로 자기 정체성을 만들어 나감으로써, 잡지는 고정 독자층을 확보하고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한다. 한국에서도 1926년에 창간된 오락잡지 『별건곤』나 1936년 창간한 『모던 조선』 등에도 성적 이미지가 즐겨 사용되었으나 피상적 수준이었다.²⁷⁾ 6·25 전쟁으로 인해 성 윤리가 이완되고 미국의 성 실태 보고서인 '킨제이 보고서'²⁸⁾가 소개되면서, 성은 은밀한 장소의 이야기거리가 아니라 공공 담론이 되기 시작한다.²⁹⁾ 킨

27) 1926년에 창간된 취미 잡지 『별건곤』, 1934년에 창간한 『월간 사담』, 1936년에 창간된 『야담』 등에서도 성적인 이미지를 즐겨 사용되었으나, 사담(史談) 형식이거나 과학적 측면에서 논의될 뿐이었다. 1936년에 창간된 『모던 조선』은 『명랑』처럼 '취미와 실익'을 편집 기조로 삼았지만, 일회성으로 그쳤다. 그 1호에서 여성 화보, 「여름과 여성미」와 「키스에 대하여」 등을 통해 성적 판타지를 자극한다. 그러나 「키스에 대하여」에서도 보듯, 키스의 정의, 역사, 종류 만 간략하게 설명되어 있다.

28) 킨제이 보고서는 『인간 수컷의 성행위』(1948), 『인간 암컷의 성행위』(1953)로, 인디애나대학 섹스 리서치 팀의 연구 결과를 킨제이 등이 공동 저술한 것이다. 한국에 여성편이 소개되자 여성의 성적 욕망과 성적 결정권 등 여성의 정체성과 인권 문제 가 제기되지만, 이내 여성의 성적 일탈로 일괄해 버린다. 킨제이, 김성이 역, 「여성의 성 행위 실태 조사(킨제이 보고·여성편)」, 『신천지』 8권 4호, 1953.9, 229-234쪽; 킨제이, 김광문 역, 『킨제이 보고(여성편)』, 신조사, 1960.



[표-2] 『명랑』의 독자 직업 분포도

제이 보고서는 성적 욕망을 남성의 전유물이 아니라, 인간 모두의 “아이덴티티, 프라이버시, 자존심, 자기 결정”³⁰⁾이라는 자유주의 정신으로 인식하는 계기가 된다. 『명랑』

은 그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활용하여, 성적 판타지를 대중적 유희 취미로 수용하여 상업적 전략으로 활용한다.³¹⁾

특히 『명랑』이 성(sex)적 담론을 활성화할 수 있었던 이유는 20대의 고정 독자층, 즉 물적 토대를 확보했기 때문이다.³²⁾ [표-2]에서도 보듯³³⁾, 『명랑』은 20대 청춘 남녀가 독자층이었다. 이들을 타겟 독자층으로 설정하고, 독자의 욕망을 편집 전략과 연동시켜 잡지의 내용을 구성 하였던 것이다.³⁴⁾ 그 결과 『명랑』은 학업이나 군복무로 결혼을 연기할

29) 바티아유는 친제이 보고서가 에로티즘을 사물화시켜 그것의 부분적 진리를 밝혔지만, 본체를 구명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김겸섭, 『바타이유의 에로티즘과 위반의 시학』, 『인문과학연구』 36권, 대구대 인문과학연구소, 2011, 90쪽.

30) 김미영, 『친제이를 통해 본 자유주의 성 해방론과 그에 대한 비판』, 『사회와 이론』 7집, 한국이론사회학회, 2005, 246쪽

31) 부르디외에 의하면, 취미는 자본의 귀속성에 따라 고급/저급문화로 나눠지며, 육체는 전략적 경계 지점이 된다. 또한 대중적 미학은 ‘유사-유희적 관계’ 또는 일상과 밀착한 에토스에, 순수미학은 윤리적 요소 또는 일상과 선별적 거리를 두는 에토스에 기반한다. Pierre Bourdieu, 『최종철 역, 『구별짓기』, 새물결, 2005, 26-27쪽.

32) 『아리랑』은 10대~40대의 광범위한 독자층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주로 가족서사를 다룬 명랑소설을 게재하였다. 김현주, 『1950년대 잡지 『아리랑』과 명랑소설의 ‘명랑성’: 가족서사를 중심으로』, 『인문학연구』 43권, 조선대 인문학연구소, 2012, 194-200쪽.

33) 이 분포도는 1956년 10월-11월 『명랑통신』에 투고 독자를 분석한 것이다.

34) 『명랑 통신』(펜팔란), 『인생 상담실』(독자 상담), 『내 고장 자랑』(고향 소개), 『명랑 애독자 쌀롱』 등을 통해 독자들은 “내 생활의 영양소”, “삶의 청량제”라는 등 자신들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하고, 『명랑 문원』은 독자의 소설, 만화, 삽화, 수기 등을

수밖에 없었던 20대의 성적 욕망을 충족할 수 있는 공간이자, “일정한 시간에 걸쳐 다수의 사람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창조된 공간”³⁵⁾이 된다. ‘누구나 다 아는 비밀’로 유지되어 왔던 성을 공공의 담론장으로 끌어들여, 논의의 대상이자 오락의 대상으로 새로운 의미를 ‘불어 넣기’(begeistern)³⁶⁾ 시작한 것이다.

『명랑』은 독자와 소통하면서 일정한 틀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무정형의 공간으로 독자의 욕망에 따라 새로운 공간으로 끊임없이 구성하면서 잡지의 생명력을 지속한다. 특히 대중 독자-필자-잡지 간의 소통을 통해 독자의 성적 욕망을 투사하고 그 욕망을 재생산하는 관계적 원리가 작동하는 불확정의 사회적 공간(Social Space), 즉 성적 공론장으로 35년간 기능한다.

3. 발견과 시선의 중층성과 성적 판타지

『명랑』에 수록된 소설 중 ‘성의학 소설’, ‘의학 장편소설’, ‘육체소설’, ‘애련소설’, ‘애욕소설’, ‘난봉염사’ 등 성적 감각이나 성적 판타지를 집중적으로 환기하는 소설을 성애소설이라고 통칭할 수 있다. 그런데 명칭 부여의 임의성과 교차 차용 및 상호텍스트성을 지니고 성을 생성·확산

제재하여 독자와 소통한다. 예컨대 『명랑』 편집후기를 보면, “화보와 기사에는 특집으로 세 쌍의 「노래하는 자매」를 초대”했는데, 이는 “애독자 여러분이” 원한 것이었다라고 밝히고 있다. 『명랑 소일기(笑日記)』, 『명랑』, 1958.8, 228쪽.

35) Jennifer Daryl Slack & Macgregor Wise, *Culture and Technology*, Peter Lang: New York, 2005, p.136.

36) 헤겔은 ‘매체적인 것의 변증법’을 지니기에, 궁극적으로 이성의 매체로 소재에 정신을 ‘불어 넣기’를 한다고 주장한다. Dieter Mersch, 문화학연구회 옮김, 『매체이론』, 연세대 출판부, 2009, 43쪽.

하는 소설들을 포괄적으로 지칭한다는 점에서, 성애소설이란 이념적 양식이 아니라 관습적이고 자의적 양식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명랑』의 성애소설³⁷⁾은 애담처럼 과거의 역사나 킨제이 보고서처럼 외국 사례에서 성적 판타지를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여기’에서 일어나는 성적 판타지를 생산함으로써 생생한 현장감을 지니고 있다. 객관적 신뢰를 주기 위해 육하원칙에 의한 서술과 조작할 수 없는 시간성을 제시하거나 1인칭 시점이나 수기 형식을 취함으로써, 실재감을 고조시킨다. 예컨대 ‘지금으로부터 6년 전 그러니까 옥희가 19살 되던 여학교에 몸을 두고 있을 어느 여름날이었다.’(『마음의 정조』), ‘병신년도 저물어가는 어느 날’(『골생관 야화』), ‘1938년 12월 31일 밤’(『해당화의 연정』), ‘1944년 12월 28일’(『추립프의 꿈』), ‘1·4후퇴에서 미쳐 수복되기도 전인 서울’(『김 매담과 내 아내』), ‘6·25의 서러운 물결-서울을 빼앗기고 난 지 이를 만의 오후’(『애정의 월야 삼경』) 등과 같이 실재 이야기처럼 서술하고 있다. 소설이 실재 일어난 이야기를 훔쳐보고 싶어 하는 인간의 욕망을 건드리고 있는 문학적 양식인데, 성애소설은 현장감과 실재감을 강조하여 실화처럼 진실한 한 인간의 고난과 역경의 삶으로부터 우러나는 감동과 삶의 가치와 진정성을 유도한다.

37) 이 글에서 성애소설을 포로노 소설로 한정하지 않는다. 『명랑』은 1956년 1월-59년 12월까지 48권이 발간되는데, 그중 25권, 즉 52%만 확인 가능하다. [표-1]에서도 보듯, 수록 소설 186편 중 성애소설은 37편으로 약 20%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57년까지 수록된 성애소설 중 ‘성의학 소설’로는 이규엽의 『마음의 정조』(56.10)과 『어느 하늘 아래 변뇌하는 육체』(56.11), ‘청춘소설’로 정비석의 『어느 여기자의 비련』(57.1-3(미완)), ‘애련소설’로 성학원의 『여인행로』(56.7), ‘육체소설’로 유후의 『골생관 야화』(57.1-3)가 있다. 58년 이후, ‘의학 장편소설’로는 이규엽의 『애욕의 강』(58.12-59.6), 김팔봉의 ‘난봉염사’ 시리즈(59.6-59.10), ‘애욕소설’로는 최태웅의 『김 매담과 내 아내』(59.6)과 서근배의 『차타령 부인』(59.12), 애련소설로는 장수철의 『사랑했건 만』(59.2)과 이병구의 『애정의 월야 삼경』(59.3), 김송의 『애정의 횡령』(25.3) 등이 있다. 이들 작품 인용 시 본문에 (쪽수), 단 연재소설은 (연월-쪽수)로 표기함.

이와 더불어 성애소설은 [그림-2]처럼 삽화나 화보를 보조적 기제로 사용하여 성적 판타지를 한층 고양시킨다. 「어느 하늘 아래 번뇌하는 육체」, 「애욕의 강」에서는 슬리브만 입은 관능적인 여성, 「마음의 정조」, 「골생관 야화」, 「해당화의 연정」 등에서는 남녀 포옹 장면 등이 삽화로 배치되어 있다. 성적 이미지의 반복적 제시는 서사보다 감각적인 이미지로 성을 표상하게 하여, 성을 유희의 대상이자 일종의 패스트푸드 문화처럼 일회적인 감각 대상으로 향유하게 한다. 특히 성의 감각화는 ‘순전히 떠도는 이미지’의 세계에 의 유혹에 무의식적으로 빠져들게 하는 속성이 있다. 감각적인 이미지의 과잉은 성, 사랑의 상호성에 대한 반응과 지속적이고 진지한 관심을 배제시키기 때문이다.³⁸⁾ 결국 성애소설이 과잉된 이미지로 가득 차게 되면 아무리 실제감을 강조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성을 확인할 수도 없는 실재, 즉 파생실재(hyperréel)³⁹⁾가 된다. 사랑의 감정이나 삶의 진정성과 유리된 채 과잉된 감각으로 이미지를 채울 때, 성적 욕망의 의미나 가치에 대한 진지한 접근은 점점 멀어지게 된다. “실재가 이미지와 기호의 안개 속으로 사라”져 버리고 마는 것이다.⁴⁰⁾ 그러나 독자들은 성적 판타지를 유도하는 상투적이고 도식적인 유혹에 지각없는 황홀감으로 자동 반응하면서 성적 판타지를 유희로서 즐기게 된다.



그림-2) 「해당화 연정」의 삽화

38) 몰리는 이미지 과잉이 일회성, 즉 ‘기억상실증의 문화’를 구성한다고 경계한다. 데이비드 몰리, 「포스트모더니즘 : 개념적 입문」, 『대중문화와 문화연구』, 한울아카데미, 1999, 121쪽.

39) 보드리야르는 오늘날 사실성과 무관한 이미지와 기호들이 그 지시대상을 부정하고, 자기 증식하는 시뮬라크르의 세계가 되었다고 비판한다. Jean Baudrillard, 『하태환 역, 「시뮬라시옹」, 민음사, 2001, 12쪽.

40) Jean Baudrillard, 배영달 역, 『보드리야르와 시뮬라시옹』, 살림, 2005, 14쪽.

그러나 성은 새로운 거부, 불복종, 반항의 충동에 의해서만 접근 가능 하므로, 유희의 대상으로 매혹감만 주는 것이 아니라 공포도 동시에 부여한다.⁴¹⁾ 『명랑』에서도 유희로서 성을 즐기도록 유도하면서도 그에 따른 공포로부터 생성한 쾌감 불안(pleasure anxiety)을 해소하려는 대중 미학적 태도를 보인다.⁴²⁾ 성적 판타지의 매혹과 함께 위험이나 공포의식을 동시에 그려냄으로써, 여전히 일상생활을 규제하는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편집진이나 독자의 쾌감 불안을 해소하려 한다. 그런데 58년 전후로 그 방식에 미묘한 변화를 보인다. 그 결과 잡지와 지배담론의 관계, 그것이 구현하는 문화정치학 역시 변화된다.

3-1. 여성의 자기 발견과 성적 결정권

가부장제에서 성적 욕망은 남성에게 용인된 활동이고 노출되어도 무방하지만, 여성에게는 규제와 은폐의 대상이다. 『명랑』의 성애소설 역시 이러한 성규범의 자장 안에서 여성의 성을 재현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기획한 성의학 소설”⁴³⁾은 “청소년에게는 확실히 색다른 의미의 소설”⁴⁴⁾이라 편집자의 발언처럼, 규제의 대상으로만 여기던 여성의 육체를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라는 정신과의 균형 감각을 유지하면서 재현하고 있다. 이 소설은 순결을 상실한 여성들의 수기 형

41) Georges Bataille, 조한경 역, 『에로티즘의 역사』 민음사, 1998, 82-83쪽.

42) 독자들은 관능적 육체와 행동을 보면서 쾌감을 느끼지만, 동시에 사회적 관습을 유지하려는 관성 때문에 불안감을 느낀다. 대중문화는 이에 대한 양가적 태도로, 쾌감 불안을 해소한다. 김현주, 「1970년대 대중소설 연구」, 연세대 박사논문, 2003, 104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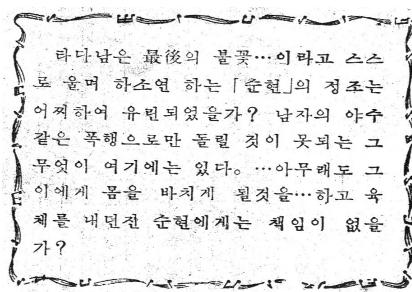
43) 「꾸미고 나서」, 『명랑』, 1956.10, 180쪽.

44) 이규엽, 「마음의 정조」, 『명랑』, 1956.10, 111쪽. 작가 이규엽은, 『젊은 의사의 수기』 (1951), 『성교육 교전』(1953) 등을 의학서와 『부인신보』에 중편소설 「춘우」, 단편소설 「가을」, 「눈보래」 등 50여 편을 발표한 작가였다.

식으로 된 연작소설로, 연작 1회인 「마음의 정조」의 주인공 옥희는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회사에 다니면서 동생 셋과 어머니를 봉양하는 성실한 소녀 가장이다. 해수욕장에서 만난 남성에게 순결을 잃은 후 실연

당한다. 연작 2회인 「어느 하늘 아래 번뇌하는 육체」의 주인공 순현은 부잣집 딸이자 음악대학을 나온 여성 인재이지만, 우연히 친구의 친척 오빠를 소개받아 사귀다가 그에게 순결을 잃게 된다. 이들의 실연을 예고하듯이, [그림-3]의 「어느 하늘 아래 번뇌하는 육체」처럼 “육체를 내던진 순현에게는 책임이 없을가?”(71), 「마음의 정조」처럼 “청춘을 좀먹는 유혹!”(111)이라는 문구로 성적 일탈에 대한 경계심을 환기시키고 있다.

보드리야르에 의하면 성적 욕망은 “유혹이 욕망이라는 에너지의 항목으로 축소되고 제한된 형태”이지만 “도전, 격화, 죽음으로 이루어진 순환적이고 가역적인 과정”인 유혹의 범주에 공포를 수반한다.⁴⁵⁾ 성의학 소설의 주인공들 역시 결혼의 예비단계라고 생각하면서도 성 관계 직전에 순결성 상실에 대한 공포감을 느낀다. 가부장적 이데올로기가 성/가족을 유지하는 관념으로 유지되는 한, 여성의 성적 욕망은 성/젠더 체계를 제압하는 도전적 욕망이기에 불안과 공포를 내포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그 결과가 예상을 빗나갈 때,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불우한 처지의 옥희나 부잣집 외동딸 순현 모두 고통과 불안감에 다시 휩싸이게 된다. 신분, 학력의 고하를 막론하고, 여성성=순결이라는 성 규범이 획일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그림-3] 『명랑』의 박스 문구

45) Jean Baudrillard, 배영달 역, 『유혹에 대하여』, 백의, 2002, 65쪽.

그러므로 「여인 행로」의 결말에서는 행방불명된 남편이 귀환할지도 모른다는 압박감으로, 여성 주인공의 고조된 성적 욕망을 스스로 자제하도록 유도한다. 「어느 여기자의 비련」에서도 주인공 자애는 약혼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검사와의 연애를 상상했지만, 결국 “그릇된 감정을 억제”(99)하는 것으로 끝맺는다. 이처럼 여성의 성적 욕망은 사회체 표면에 확산되는 것이 아니라, 내재화된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스스로 규제하고 내면으로 감추어진다. 또한 여성이 경제 활동을 위해 성적 매력을 활용하더라도, 스스로 자신의 성적 일탈을 규제해야 한다는 암묵적 동의를 구하고 있다. 예컨대 자애는 잡지사 편집장으로부터 “원고 부탁을 일주일씩이나 다니다가 이제 와서 손을 들고 만다면 그것은 김자애라는 여성의 자존심에 관한 문제가 아니냐 말야?”(57.3-93)라는 말을 들은데다가, 스스로도 오검사를 정복하고 싶다는 욕망을 갖게 된다. 그 결과 오검사의 원고 수락과 구애를 동시에 받지만 약혼자에 대한 신의를 지키는 것으로 종결된다.

그런데 『명랑』의 성애소설은 성적 욕망을 은폐하고 규제하면서도 여성의 성적 욕망을 긍정적인 힘으로 효과적으로 배치하여 명랑성을 유지한다. 이러한 태도는 『명랑』 창간사에서도 밝혔듯이, “희노애락 중에 구태여 희(喜)나 락(樂)을 경원할 것은 아니로되 다만 어떠한 역경이나 곤비에 처하더라도 다 같이 마음의 여유, 즉 친부의 선물인 명랑성(明朗性)”을 회복하여, “흔미한 시류를 극복하기 위한 용력의 원천으로 국민의 심기(心機)를 좀 더 명랑 활달하게”⁴⁶⁾ 전개하려는 잡지의 의도와 부합한다. 이 시기 성애소설에서 여성의 성적 자기 결정권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는 명랑성을 유지하는 방식이기도 하다. 이는 전후 암울한 현실을 성적 판타지로 명랑하게 도피하고 싶은 독자들의 욕망과 활발한 경

46) 횡준성, 「명랑성에의 귀의」, 『명랑』, 1956.10, 63쪽.

제 활동에 따른 여성의 지위 상승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특히 이 시기 성애소설에 여성들이 자신의 성적 욕망의 발견하고 성적 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을 자주 재현되는 것도 그러한 이유에 있다.

옥희는 이런 뜻하지 않은 사나이의 간청에 불안한 그리고 무서운 아가리가 자기 앞에 딱 뻗치고 서 있는 것 같은 공포감에 찬 땀이 이마를 스쳐감을 느끼었으나 한편 아지랑이 같은 행복감에 사로잡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었다.(114)

즉 「마음의 정조」의 옥희는 남성의 유혹에 ‘공포감’을 느끼면서도 아지랑이 같은 “행복감”에 사로잡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걷잡을 수 없는 마음의 파동을 다스리기 어려워”지는 상황을 경험한다. 「어느 하늘 아래 번뇌하는 육체」의 주인공도 “고통스런 것을 몰랐다. 아니 도리어 나는 몸 훈훈한 황홀경으로 빠져 들어가는 자신을 발견”(72)한다. 이처럼 성의학소설의 주인공들은 모두 내적 욕망에 따라 성적 관계를 갖고 그 과정에서 성적 자아를 ‘발견’한다. 성적 자아를 발견한다는 것은 주체로서 자기를 정립하다는 것이므로, 여성 주인공들은 그 주체로의 성숙 과정에서 ‘행복감’ 내지 ‘황홀경’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여성들은 상대 남자를 삶의 동반자라고 여기게 되면서 기존의 성 규범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이들 여성들이 느낀 성적 “격렬함은 다른 어떤 격정보다도 심한 정도에 이르게 된다. 그 때문에 이성을 잃어버리고 믿기 어려울 정도의 힘과 인내로 모든 장애를 극복”⁴⁷⁾할 것 같은 힘으로 인지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힘이 곧 배반되자 다시 공포와 불안을 느끼지만, 이들 여성들은 스스로 성 규범으로부터 벗어났던 경험으로 성숙해진 상황이기에 실연의 고통을 ‘명랑 활달하게’ 벗어 버린다.

47) A. Schopenhauer, 조규열 편역, 『성애론』, 문예출판사, 1999, 15쪽.

마음속에 용소슴처 오르는 새로운 맑은 샘만이 지금의 옥희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힘이었을지도 모른다.

다시 사는 것-(116)

인용처럼 「마음의 정조」에서는 옥희는 “시대의 조류”가 달라졌기에 “처녀의 순결성은 존귀한 것이지만 그렇다고 순간의 착오로 짓밟힌 육체를 한 평생 한탄하는 것은 우매한 것이”(112)며, ‘마음의 정조’의 중요성을 인식함으로써 스스로 새 출발의 내적 합리성을 찾는다. 또한 「어느 하늘 아래 번뇌하는 육체」에서도 순현은 자신을 배신한 “그 놈”과 자신의 애인을 소개시켜 준 친구에게 “여성의 적(敵)”이자 “남성(男性)의 적”(74)이라고 욕설로 배신감에 대응하면서 망각의 힘을 빌어 새 출발을 결심한다. 이들의 새 출발은 여성에게만 가해진 ‘순결=여성성’이라는 성 규범의 초월을 의미한다. 새 출발은 불안감으로부터 탈출로써, 성적 욕망과 성의 향유를 욕망하는 독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장치이기도 하다.

성의학 소설과 비슷한 시기에 발표한 애련소설에서도 여성의 성적 욕망은 삶의 활력을 주는 계기로 ‘명랑 활발하게’ 재현된다. 애련소설 「여인행로」에서도 주인공 경희는 전쟁으로 남편을 잃고 생계를 위해 교사 생활을 하지만, 늘 성적 욕망에 결핍을 느낀다. 그 와중에 1년 동안 만나온 남성에게서 ”목구멍이 확근 달아올라 컥 말라붙는 듯한 숨가쁨을”(129) 느끼고 삶의 활력을 찾는다. 「어느 여기자의 비련」에서도 성적 욕망을 사회체 표면으로 추동해 내고 있다. 여기자 자애는 성적 욕망을 자극하여 쟁쟁한 일류 신문기자의 원고 청탁도 거절한 오중환 검사의 원고와 사랑을 동시에 받아낸다. 오검사는 “자애한테만은 이상한 매력이 느껴져서, 자기 자신을 억제하기 위해 의식적으로 면회를 회피한 데 불과하였”(96)기에 기꺼이 원고 청탁을 수락하고 만 것이다. 이런 오검

상의 마음을 알고, 자애는 기쁨과 자랑스러움을 갖는다. 자신에게 오 겸 사의 냉담한 태도에 스스로 자기를 ‘못난 여자’로 자책하고 ‘자기 환멸’과 불쾌감마저 느끼고 출판사를 그만 둘 결심까지 하고, 상처한 아들을 재 취시키고자 하는 오겸사의 어머니의 심리를 활용하면서까지 원고 청탁에 매달렸기 때문이다.

이처럼 50년대 중반 『명랑』 성애소설에서 여성들은 성적 욕망체로서 (사회적)자아를 발견하고 성적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기감정의 주인이 되고 감정의 충일성을 스스로 추구하고 태도를 긍정적으로 재현된다.⁴⁸⁾ 여성의 성적 결정권을 ‘명랑하게’ 반복적으로 재현하는 것은 성/젠더에 작동하는 가부장적 이데올로기가 느슨해진 시대 상황을 무의식적으로 반영한 것이다. 전쟁으로 국가 체제가 혼들리면서 남성의 공적 활동은 위축되고 가부장적 권위도 불안정해졌기 때문이다. 게다가 여성의 전쟁 발발 이후 가족의 생계를 위해 남성 대신 공적 역할을 수행하고 가정과 사회에서 가치와 의미를 생산하게 되면서, 사회적 지위가 상승되고 남성의 타자가 아니라 사회적 주체로서 자아를 발견하게 된다. 이러한 여성의 존재 변화가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를 흔들고, 그러한 현실적 관계가 성애소설에 투영된 것이다. 즉 삶의 존재 조건과 맷는 현실적 관계를 체험하는 성적 이미지, 그것의 재현이나 체험되는 무의식적 범주가 이데올로기의 변화를 가져온 것이다.

1950년대 중반의 성애소설은 성 규범의 규제와 이탈이라는 양가적 태도로, 여성들을 가족 ‘안’과 ‘밖’의 경계를 넘나들며 성적 자아를 ‘발견’하고 성적 결정권을 행사하는 능동적인 주체로 재현하고 있다.⁴⁹⁾ 여성의

48) 『명랑』 창간호에서도 매춘을 한 부인을 “희망의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는 남편의 호소의 글이, 또는 미녀가 과거 옆집의 남성을 집에 불러들이는 공상을 행복하게 재현한다. 최정호, 「윤락한 아내에게 사랑의 손길」, 『명랑』, 1956.1; 안창신, 「명륜동의 여인」, 『명랑』, 1956.1.

자율성 신장이라는 현실을 반영하면서도 성적 욕망의 발견=일탈/고통=가족 ‘밖’이라는 도식으로 반복적으로 재현하여, 여성 스스로 자신의 성적 욕망을 자기 규율하여 가족 ‘안’으로 스스로 안착하게 한다. 이에 따라 여성이 자유와 도전의 정신으로 성적 욕망을 실현하고 자율적으로 자신을 규율하는 주체로 인식하게 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 시기 성애소설은 성/젠더의 체계를 재조정하고 재구축하려는 의지들과 기존의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를 유지하려는 의지들 간의 각축을 오히려 활용하여 성적 판타지를 불안감 없이 향유하게 한다. 동일시기의 「아리랑」에서 여성성=순결성이라는 성 규범이 여전히 여성에게만 작동되는 것과 비교할 때 『명랑』의 성애소설은 가부장제의 균열을 적극 반영하여 그 균열을 견인해 나가고 있는 셈이다.⁵⁰⁾ 여성의 성적 욕망을 사회체 표면으로 부상함으로써, 성적 판타지를 유희적으로 즐기는 한편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그로 인한 성적 자기 결정권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차원에서 ‘명랑성’을 유지하고 있다.

3-2. 관음증적 시선과 타자화된 여성

1950년대 후반 국가재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정부는 반공을 핵심적 이념으로 하는 일민주의를 확산하는 한편 가정=가부장의 재건에 주력한

49) 유호는 『아리랑』에 ‘명랑소설’을 제재하면서 본격적인 작가 생활을 하는데, 그의 소설은 항상 보수적인 성 규범을 유지한다. 『명랑』에 육체소설이라는 부제를 단 「골생관 야화」(57.1-3, 4회부터 미확인)를 제재하지만, 육체적 욕망의 남녀, 특히 여성을 부정적으로 재현하고 있다.

50) 『아리랑』에서 여성의 발언은 성 규범을 초월하지만, 행동은 그렇지 않다. 조흔파의 「구애오인조」(56.9)에서 혜숙은 여러 남자와 데이트 하지만 처녀성은 지킨다. 또한 유호의 「실례했읍니다」(57.11)에서도 여성이 남성과 여관까지 동행하지만, “처녀가 아님 어때”(141)라고 하면서도 남성의 요구를 거절한다.

다. 일상생활에서는 전쟁에 나갔던 남성들의 일자리 찾기와 남성 대신 경제 활동을 하던 50%가량의 여성들을 가정으로 귀환시키는 작업이 안정기에 들어선다.⁵¹⁾ 이에 따라 성차의 공사 영역이 구획되고, 여성의 성적 욕망=방탕=가족 '밖'이라는 여성 내적 공포가 자율적인 윤리적 기제에서 국가, 사회, 가정의 질서를 유지하는 강제적이고 의무적인 윤리적 기제로 작동하게 된다. 이는 50년대 중반까지 공적 영역에서 지위가 불안정할 때 여성의 자율적 권한을 기꺼이 승인하였던 남성들이, 점차 확고한 공적 지위를 점유하면서 공/사적 영역에서 여성의 자율권을 협소화시키는 과정에서 실현된다. 그 결과 여성의 성은 남성에 의해서 조정되고 통제되어야 할 대상으로 자연스럽게 인식되면서, 여성의 성적 욕망은 부정적인 것으로 대상화된다. 이 시기 “성적 결정권을 가진 남성들이 주부에게 요부”적 성향을 갖춘 능부가 되어야 한다는 주부담론과 함께, 아프레 걸의 성적 방탕을 논하는 좌담들이 지상(紙上)에서 자주 발견되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이다.⁵²⁾

50년대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명랑』에서도 아프레 걸에 대한 부정적 언급이 부상되고,⁵³⁾ 성애소설에서는 여성의 성적 욕망이 은폐되거나 억

51) 김현주, 「1950년대 여성잡지 『여원』과 '제도로서의 주부'의 탄생」, 『대중서사연구』 18호, 대중서사학회, 2007.12, 393쪽; 서중석, 「일민주의와 파시즘」, 『이승만의 정치 이데올로기』, 역사비평사, 2005, 90쪽; 이임하, 「한국전쟁과 여성노동의 확대」, 『한국 사학보』 14권, 2003, 251-260쪽.

52) 곽종원, 「새 세대를 위한 일곱 가지 문답-명랑 활발을 아프레와 혼동하고 있지 않은 가」, 『여원』, 1956.10; 좌담회, 「새로운 세대를 위한 윤리와 생리의 대화」, 『여원』, 1957.4; 조연현, 「해방 후: 윤리적 기초의 연애」 『여원』, 1957.4; 이해복, 「한국 매춘 문제」, 『여성계』 1958.3; 조풍연, 「아프레게르와 처녀성」 『주부생활』, 1959.4 등

53) 『아프레』 걸에 대해 “경멸감도 있고 증오감도 있고, 그들을 나무래는 감정도 포함되어 있는” 말이며(『10대의 동태를 살핀다』, 『명랑』, 1958.3, 179쪽), “아프레 여대생의 종 말은 자결이었다”(『아프레 여대생-육체와 정신과 연애와 결혼』, 『명랑』, 1958.3, 184쪽), 또는 “요즈음 〈아쁘레·게르〉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공익과는 거리가 있는 사람이라고 비판하기도 한다. 조풍연, 「신연애 풍속도」, 『명랑』, 1958.5, 135쪽.

제되어야 할 감정으로 본격적으로 재현된다. 58년 이전 성의학 소설에서 여성의 육체와 정신을 균형적으로 재현하고자 했던 것과는 달리, 이 규엽은 '의학 장편소설'인 「애욕의 강」⁵⁴⁾에서도 여성의 육체로부터 자율적 정신을 탈각시켜 버린다.⁵⁵⁾ 음대생인 김옥주는 의학도 이명철과의 육체적 친밀감으로 사랑을 확인 받고 싶어 그를 적극적으로 유혹한다. 그러나 경제적 기반을 갖추지 못한 명철은 그런 옥주의 유혹을 냉정하게 거절한다. 게다가 그는 동료 여성과 함께 길을 가는데, 옥주는 명철의 연인으로 오해하고 핫김에 친구 오빠인 장용환과 만나 열정적인 밤을 보낸다. 명철은 박사 학위가 확정되자 옥주에게 청혼하지만, 장용환의 아이를 임태한 옥주는 청혼을 거절하고 참회의 편지를 보낸다. 명철은 편지를 받고 그녀와의 사랑을 추억 속에 접어둔 채 미국으로 떠난다는 이야기이다. 이 소설은 여성의 성적 결정이 여성을 가족 '안'으로 포용했던 성의학 소설과 뚜렷하게 대비된다. 옥주의 성적 욕망은 자기 발견이 아니라, 자기 파멸의 계기가 된다. 옥주는 육체의 욕망에 따라 행동하다가 결국 '마음의 별'(204)처럼 우러러 보던 명철을 포기하고 만 것이다.

"정인애? 히히히 나다 나야. 내가 정인애야. 날 모두 미쳤다고 하지. 난 안 미쳤어. 아니 어떻게 남의 여자 이름까지 알구 다니십니까. 점쟁이신가 봐 히히히……. 감사합니다. 아저씨 난 안 미쳤죠."(131)

인용처럼 팜므파탈 형의 정인애가 종국에는 반라(半裸)로 거리를 헤매는 광녀로 그려지면서, 옥주의 삶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예견과 함

54) 소설 제목에서 전쟁미망인의 성 문제로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정비석의 『유혹의 강』(『서울신문』, 1958.2.1-10.29)을 환기시킨다.

55) 58년 이후부터 이규엽은 의학 상담에서 여성의 순결을 강조한다. 이규엽, 「자녀의 성 질문과 친절한 답변」, 『명랑』, 1958.4.

께 여성의 성적 욕망=조롱의 대상=자기 파멸=가족 '밖'이라는 암묵적인 합의를 자연스럽게 도출한다.

58년 이후의 애욕소설도 여성의 성적 욕망은 동일한 합의를 도출한다. 「김 매담과 내 아내」에서 '나'는 사장 비서이자 내연녀였던 이전애와 결혼한다. 사장에게 위자료를 챙겼던 아내는 그 돈으로 명동에 다방을 차리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지만, 나는 그런 아내가 결국은 가족 '밖'에서 밀회하는 "불결한 꼴"(201)을 보게 된다. 「차타령 부인」에서도 주인공은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명동의 밤거리를 헤매다가 우연히 만난 청년과 밀회를 나눈다. 밀회 현장이 남편에게 발각되지만, 성 불구로 여겼던 남편이 그녀를 겁탈하자 기쁨과 의아심을 갖게 된다. 남편이 성 불구로 가장한 이유가 부인의 아버지가 남의 아이를 잉태한 그의 어머니와 결혼 후 이혼한 것에 대한 복수 때문이라는 사실도 듣게 된다. 결국 여성의 성적 욕망은 가족 '밖'으로 배제되는 계기이자 결과가 된다. 이는 애련소설 「사랑했건만」에서도 관철된다. 이 소설의 주인공 영진은 남해의 교사 시절에 만났던 옥녀를 바결로 해후한다. 영진과 바닷가를 산책했다는 이유로 고향을 떠나게 된 옥녀는 술집으로 전전하게 되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영진은 그녀와 결혼을 결심한다. 그러나 옥녀는 영진을 위해 그의 호의를 거절한다.⁵⁶⁾ 「애정의 월야 삼경(三更)」의 주인공 형구도 아내가 가출한 사이 첫사랑 덕숙을 만나 애듯한 하룻밤을 보낸다. 덕숙과 결혼까지 생각하던 형구는 아내의 적극적 구애에 넘어가서 결혼한 것이다. 그로 인해 덕숙은 고향을 떠나 일본인과 불행한 결혼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처럼 애욕소설, 애련소설은 여

56) 58년 이후 『명랑』의 다른 소설에서도 윤락녀는 가족 '밖'으로 배제된다. 「어느 창부의 과거」에서도 생활고로 매춘을 하지만 전쟁통에 죽은 남편도 윤락을 용서하지 못 할 거라고 여기고, 임시 결혼마저 파기하고 창부로 떠돈다. 방기환, 「어느 창부의 과거」, 『명랑』, 1958.6.

성의 성적 욕망=조롱의 대상=가족 '밖'으로 재현함으로써, 여성의 육체는 불결한 몸으로 관조되고 여성의 성적 욕망은 자기 파멸로 재현된다.

이는 여성 편력기인 '난봉염사' 시리즈⁵⁷⁾, 「애정의 횡령」⁵⁸⁾, 박용구의 연작소설⁵⁹⁾에서도 여성의 성적 욕망을 조롱하면서도 남성의 정복욕을 충족시키는 방식으로 재현된다. 「해당화의 연정」은 정열적인 '해당화'를 닮은 희생적인 기생 선부와의 사랑을, 「추립프의 꿈」은 '새빨간 추립프꽃'처럼 관능적인 기생 이비연파의 사랑을, 「흰 도라지꽃」은 '청초한 백도라지꽃' 같은 교양 있는 장연화와의 사랑을, 「여옥」은 지성적인 문필가 지망생 여옥과 난봉의 사랑을 다루고 있다. 이 소설에서 난봉은 독립투사로, 과도한 피로감을 위무 받거나 안식할 장소를 찾는다는 명분으로 여성들과 만남을 지속한다. 그가 만난 여성들은 기생이나 독신 여성으로 지속적 관계 유지를 소망하지 않기에, 그의 여성 편력은 결코 비난거리가 되지 않는다. 이러한 방식으로 난봉염사는 순종적인 여성, 희생적인 여성, 관능적인 여성, 청초한 여성, 지적인 여성 등 다양한 유형의 여성과의 만남, 남성의 정복욕, 보호할 책임으로부터 해방된 성적 욕망의 충족을 소망하는 남성의 성적 판타지를 극대화시킨다.

이처럼 『명랑』은 성애를 주도하는 시기에 국가 주도의 문화 관리가 본격화된다. 즉 음란물 단속을 본격적으로 시도하지만, 『명랑』은 이를 피해 간다.⁶⁰⁾ 그 이유는 성애를 매혹과 공포로 재현하는 양가적 태도와

57) 연재 6회 중 「해당화의 연정」, 「추립프의 꿈」, 「흰 도라지꽃」, 「여옥」만 확인 가능하다.

58) 김송의 「애정의 횡령」(58.3)은 횡령죄로 감옥살이를 한 인호는 자신에게 비호감인 난희에게 '애정의 횡령범'이라며 느닷없이 키스를 하고, 난희는 그의 사랑을 수락한다.

59) 박용구의 59년 4~9월에 연작소설 「졸업식」, 「욕정의 파편」, 「병든 청춘」 등을 게재하는데, 주인공 손종기가 대학 졸업 후 취업도 못하고 3명의 여자 사이에서 성적 병황을 하는 이야기이다.

60) 『명랑』의 성애와 오락잡지의 노골적 동거는 다른 오락잡지에도 영향을 준다. '읽는 잡지'를 표방했던 『아리랑』도 성 관련 화보를 대폭 확장한다. 결국 오락잡지는 성애

그것을 경계의 대상으로 삼는 남성적 시선의 관철에 있다. 그 결과 여성의 성을 유희와 조롱의 대상으로 타자화하고 남성의 관음증적 욕망 실현에 탄력적으로 반응하는 성 담론을 구성한다.

‘호텔’로 들어가서 계획대로 한 사람만이 자는 것처럼 말소리 숨소리들을 죽여 가면서 바싹 그들 쪽으로 붙어 누었던 것이었다. 나는 참아 결방에서 벌어졌던 한 쌍, 아니 두 마리의 개라고나 할까 개가 오히려 백 배 점잖다 할가(201)

인용문은 「김매담과 내 아내」에서 주인공이 목격한 남녀의 성에 장면에 대한 묘사이다. 주인공은 성애를 점잖치 못한 ‘개’의 유희로 경계하면 서도, 부인의 불륜 장면을 포착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관음증적 욕망 실현을 멈추지 않는다. 조능식의 「사실은 소설보다 기이하다」(58.3)에서도 남성이 여성을 강간하는 쏘를 연출하고, 그것을 남성들이 돈을 내고 관람하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관음증적 욕망 충족을 재현하고 있다. 또한 애련소설 「애정의 월야 삼경」에서도 친구의 애인을 빼앗기 위해 “실로 것잡을 수 없는 흥수 물줄기 같”(271)은 애정 공세를 하여 자신을 유혹하는 장면이, 「차타령 부인」이나 「부정의 꽃」(58.5)에서는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밤거리를 헤매는 여성들의 무분별한 성적 방종이 남성 작가의 시선으로 포착된다. 남성의 시선에 포착된 남녀의 성적 욕망은 추접하고 불결한 것으로, 가족을 해체하는 비윤리적이고 반사회적 행동으로 그려진다. 특히 여성들은 남녀 관계에서 남성보다 더 적극적이고 비

잡지라는 인식 하에, 58년부터 음란물 단속 대상이 된다. 결국 오락잡지 『실화』와 『흥미』를 “음화와 음탕 저속한 기사” 수록이라는 이유로 ‘판권취소’되고, 『야담과 실화』도 58년 1월호 기사 “서울 처녀 60%는 이미 상실? 경이! 한국판 칸제이 여성 보고서가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로 폐간 및 발매 금지 처분을 받는다. 『흥미 실화 판권 취소 건의』, 『동아일보』, 1958.1.12; 『『야담과 실화』 폐간』, 『동아일보』, 1958.12.2; 『대중잡지는 자율적으로 전전화하라』, 『경향신문』, 1958.1.18.

이성적인 존재로 간주된다. 적극적으로 사회 활동에 투신하여 남편 대신에 일류 요정의 마담이나 다방 마담이 되어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지만, 항상 성적 일탈로 나아간다. 이처럼 이 시기 성애소설에서 그리고 있는 여성들은 경제적 활동이나 성적 욕망에 모두 적극적이고 자기 주장이 강하지만, 성적 욕망을 조절하지 못하고 비이성적이고 파렴치한 성적 일탈로 질주한다. 따라서 이러한 여성의 질주는 조롱의 대상이 된다. 이들 여성의 부끄럼 없는 육체는 성적 매력을 상실한, “아무런 보호 막이나 신비화 없이 생식기 능력에 의거해 오르가즘을 추구”⁶¹⁾하는 몸 뚩어리로 그려냄으로써, 육체가 정신과 분리되어 있는 존재이로 인지되고 자연스럽게 규제의 대상이 된다. 반면 남성들은 「김 매담과 내 아내」처럼 “정력 같은 것이 급격히 감쇠”(198)한 무기력한 존재이거나 경제적 능력이나 사회적 지위도 갖지 못한 존재로 언제나 여성보다 수세로 서술된다. 그러나 그들은 「김매담과 내 아내」나 「애정의 월야 삼경」처럼 가족 ‘밖’으로 나간 여성을 말없이 기다리면서 가족 ‘안’을 지키려고 하거나 「애욕의 강」의 명철처럼 미래에 대한 진지한 숙고로 인해 우유부단한 행동을 취한다. 그 결과 「애정의 월야 삼경」의 덕숙이나 「사랑했건만」의 옥녀같이 성적 피해를 당한 여성마저도 성적 일탈로 간주되고 위로와 연민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샤滕프로이데’의 대상이 되면서,⁶²⁾ 가족 ‘밖’으로 밀려난다. 이러한 재현을 통해 여성의 성적 욕망은 여성의 성적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용인되는 것이 아니라 순결을 지켜야

61) 김미영, 「킨제이를 통해 본 자유주의 성해방론과 그에 대한 비판」, 『사회와 이론』, 한국이론사회학회, 2005, 247쪽.

62) 남의 불행과 고통을 통쾌하게 여기는 심리적 상태를 ‘샤滕프로이데(독일어, Schadenfreude)’라고 한다. 일종의 ‘偿痛 심리’로, 불행(Schaden)과 즐거움(Freude)의 독일어 합성어이다. Lauren Berlant, “Introduction”, Lauren Berlant(ed), *Compassion: The Culture and Politics of an Emotion*, Routledge: New York and London, 2004, p. 5; 토머스 데이븐포트, 김병조 역, 『관심의 경제학』, 21세기북스, 2006, 101쪽.

하는 윤리적인 의무의 장소가 된다. 반면에 남성들은 여성의 비윤리적이고 반사회적인 행동을 이성적으로 생각하거나 분별력 있게 비판할 능력을 갖춘 존재로 그려짐으로써, 가족 '안'에 정주하게 되고 성적 욕망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성적 주체로 인정하게 만든다.

이와 같이 50년대 후반의 성애소설에서 남성만이 가족 '안'과 '밖'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성적 욕망을 충족하는 주체로, 가족 '안'의 여성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잡재우고 남성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반응해야 하는 타자로 그려진다. 자의진 타의진 가족 '밖'으로 내쳐진 여성은 남성의 성적 욕망에 능동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존재이지만 남성의 타자로서만 존재할 수 있다는 역설을 성립시킨다. 이에 따라 가족 '밖'의 여성 활동은 성적 방탕이 예견되고, 가족 '안'의 여성만이 순결을 지킬 수 있다는 공식이 자명한 것으로 인지된다. 이러한 공식은 여성은 가족 '안'/'밖'으로 자연스럽게 구획하고 여성에게만 성 규범을 강제하는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를 더 강력하게 견인하는 한편 현대의 신화로 자리 잡게 된다. 이에 따라 여성의 성적 욕망뿐만 아니라 적극성이 가족 '안'에서 남편에게만 수렴되는 지향성을 가질 때만이,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여성의 삶을 영위할 수 있음을 무의식적으로 수용하게 된다. 『명랑』의 성애소설은 공/사=남성/여성이라는 성차에 따른 영역 구별을 자연스럽게 수용함으로써, 정부 시책이나 사회 분위기에 '명랑하게' 순응하는 길로 나아간다.⁶³⁾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에 근간을 둔 성 영역의 구별이 정착하면서, 남성의 관음중적 욕망에 대한 성적 유혹은 더 강렬해지고 실재감 없는 성적 이미지에도 반응하는 "시각적 무의식" 세계를 끝없이 상상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⁶⁴⁾ 보드리야르의 지적처럼, 성적 "유혹은 실재의 진지함

63) 작가의 젠더 표지, 국가재건정책, 전후 남성의 해제모니 간의 상관관계는 차후에 논의하기로 한다.

에 대한 부정이며, 생산과 의미와 절박성에 대한 부정”이 될 때 놀이로서 기능이 더 강화되기 때문이다.⁶⁵⁾ [표-1]처럼 58년 이후 『명랑』은 성애 소설의 증가와 함께 과학적 지식이나 실제 경험담 등을 통한 성 정보 제공의 내용들도 확장된다. 이는 성적 자율성로 성적 상상력을 확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국가 주도의 문화 관리에 공조하면서 과잉된 이미지로 즉자적인 성적 감각과 성적 판타지를 확산시켜 일회적인 놀이로서의 유희 기능을 강화시킨다.⁶⁶⁾

4. 성애소설의 성적 판타지와 문화정치학

1950년대 『명랑』은 언론의 자유, 알 권리라는 민주주의적 발상과 상업성으로 성애를 과잉된 이미지의 합성과 도식적이고 위조된 현실로 생산·재생산하면서 오락잡지의 정체성을 구성한다. 성에 내재된 부정의식은 일반적으로 성 규범의 도전과 일탈이라는 양가적 의미를 산출한다. 『명랑』도 성적 판타지를 조성하면서, 독자들에게 기존의 성 규범에 안주하면서 성적 이미지와 무의미한 성적 기호들이 산출하는 파생 실재를 관음증적 시선으로 소비하는데 익숙하게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현실의 성적 관계에서 쉽게 충족되지 못하는 성적 판타지를 상상하는 매혹에의

64) Dieter Mersch, 문화학연구회 옮김, 『매체이론』, 연세대 출판부, 2009, 73쪽.

65) Jean Baudrillard, 정연복 역, 『섹스의 황도』, 솔, 1993, 198쪽.

66) 『명랑』은 점차 남성에 의한, 남성을 위한 잡지로서 정착하게 된다. 따라서 여성의 신체에 대한 과학적 정보 제공을 표방하는 글도 “성적 매력 경쟁시대”, ‘유방미 경쟁 시대’가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64-65) “유방이야말로 여성 최대의 무기이며, 남성의 향수와 욕구를 느끼게 하는 원천”(63)이라는 등의 문구로 남성의 관음증적 욕망 충족에 기여한다. 이남식, 『현대인의 새로운 매력 연구-유방의 매력』, 『명랑』, 1958.3; 강성필, 『현대인의 새로운 매력 연구-힙프의 매력』, 『명랑』, 1958.3.

도전을, 현실에서 요구하는 진지함이나 책임으로부터 해방할 수 있는 자유의 정신을 향유하게 한다.

특히 오락잡지의 상업적 헤게모니를 잡기 위해 기획한 『명랑』의 성애 소설은 소설이란 형식을 빌어 성적 이미지와 그것의 실재감을 주는 소설적 장치를 배치한다. 이 소설은 성적 판타지를 고양시키면서 남성의 성적 욕망의 대상이자 소비 상품 내지 유희 대상으로 성을 타자화시키는 효과를 산출한다. 특히 '좀 더 명랑 활달하게' 명랑성으로 귀의하고자 하는 『명랑』의 편집 의도가 개입되면서 성의 재현 방식이나 태도에 영향을 준다. 그런데 58년을 기점으로 여성의 성적 욕망과 그에 대한 태도에 미묘한 변화를 가져온다. 즉 1950년대 중반의 성애소설에서 여성들은 가족 '안'과 '밖'의 경계를 넘나들며 성적 자아를 '발견'하고 성적 결정권을 행사하는 능동적인 주체로 자기를 정립한다. 여성들은 성적 욕망을 자연스럽게 표출하면서도 스스로 공포를 감지하고 자신의 성적 욕망을 자율적으로 조율하고 가족 '안'에 안착한다. 그 결과 독자들은 성적 자율성에 토대를 둔 성적 판타지를 불안감 없이 '명랑하게' 향유하게 된다. 반면에 50년대 후반의 성애소설에서는 남성만이 성적 결정권을 가진 주체로 용인된다. 여성은 가족 '안'/'밖'으로 자연스럽게 구획되고 그들에게만 성 규범과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를 더 강력하게 강제한다. 이에 따라 여성의 성적 욕망은 무분별하고 과잉된 에너지를 분출하는 것으로, 다른 가족이나 자기 자신을 파멸하게 하는 요인으로 간주되면서 조롱의 대상이 된다. 이 조롱은 국가 주도의 문화 관리와 '명랑하게' 조응하는 기능을 수행하면서, 여성의 성적 욕망은 가족 '안'의 남성에게만 수렴되는 것이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지향성임을 무의식적으로 동의하게 하는 효과를 파생시킨다.

이와 같이 50년대 중반 『명랑』의 성애소설이 성을 자유와 도전의 정

신으로 인식했던 것과는 달리, 국가 주도의 문화 관리와 공조하면서 점차 파편적이고 편파적으로 취재·생산하여 위조된 현실과 합성된 이미지의 오락적 소비물이 되고 성적 욕망에 내재된 자유주의 정신마저 소거해 간다. 마치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던 이승만 정권이 국가 재건에 실패하면서 정권의 위기를 국민을 친체제 인사/불순분자로 구획한 것과 마찬가지로, 여성을 가족 '안'/'밖'으로 구획한다. 그리고 가족 '밖'의 여성을 상품화하여 이윤 추구를 극대화시키는 방식으로, 성을 소비 상품 내지 오락물로 타자화시킨다. 성애소설이 잡지의 상업성과 결탁하는 순간 문학적인 기술을 파편적 이미지로 표상하게 되고 매체가 가지는 자가 성찰성이 사라지는 것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는지도 모른다. 성이 유희적 놀이가 되는 순간 거짓 이미지의 과잉이나 실재감의 부정은 심화되고, 남녀 관계의 진지함이나 그 의미와 생산의 절박성마저도 점차 삭제해 가기 때문이다. 『명랑』의 성애소설도 성의 유희화와 동일한 길을 가게 된다. 소설이라는 양식을 차용하고 있지만, 픽션과 현실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성을 상품화하고 소비하는 키치적인 오락물로 스스로의 정체성을 구성·강화한다. 그 결과 근대 이후 취미의 품격을 고양시켰던 소설 읽기를 저급화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한다. 이후 성애소설은 소설의 신성과 숭고를 스스로 삭제한 하위문학으로, 문학의 타자로 대중문화의 언저리를 차지하게 된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명랑』, 1956.1-1960.2.
『아리랑』, 1955.3-1960.8.
월간 『희망』, 1952.6-1958.6.

2. 국내외 논저

김겸섭, 「바타이유의 에로티즘과 위반의 시학」, 『인문과학연구』 36권, 대구대 인문과학연구소, 2011, 83-114쪽.
김미영, 「킨제이를 통해 본 자유주의 성 해방론과 그에 대한 비판」, 『사회와 이론』 7집, 한국이론사회학회, 2005, 215-259쪽.
김복순, 「전후 여성교양의 재배치와 젠더 정치」, 『여성문학연구』 18호, 한국여성문화학회, 2007.12, 7-60쪽.
김신현경, 「성적 주체로서의 여성, 욕망과 폭력 ‘사이’?」, 『여성과 사회』 13호, 한국여성연구소, 2001, 44-64쪽.
김지영, 「1950년대 잡지 『명랑』의 ‘성’과 ‘연애’ 표상-기사」, 『여성과 사회』 10호, 2012, 173-206쪽.
김현주, 「1950년대 잡지 『아리랑』과 명랑소설의 ‘명랑성’: 가족서사를 중심으로」, 『인문학연구』 43권, 조선대 인문학연구소, 2012, 173-206쪽.
김현주, 「1950년대 여성잡지 『여원』과 ‘제도로서의 주부’의 탄생」, 『대중서사연구』 18호, 대중서사학회, 2007.12, 387-416쪽.
박형준, 「성적 욕망과 자아, 그리고 친밀성의 논리」, 『고려사회학논집』 8집, 고려대 사회학연구회, 1994, 97-117쪽.
이봉범, 「1950년대 잡지저널리즘과 문학-대중잡지를 중심으로」, 『상허학보』 30호, 상허학회, 2010, 397-454쪽.
이영미, 「성애의 시대, 여성 주체와 섹슈얼리티」, 『국제여문』 33권, 국제여문학회, 2004, 293-321쪽.
이을상, 「성애의 본질」, 『철학논총』 31집 1권, 새한철학회, 2003, 125-147쪽.
조윤정, 「전후세대 작가들의 언어적 상황과 정체성 혼란의 문제」, 『현대소설연구』 37권, 한국현대소설학회, 2008.4, 229-258쪽.
조찬수, 「전후 국제 경제 질서의 국내 정치적 기반: 내장된 자유주의에 대한 하나의 역사 제도주의적 설명」, 『한국정치학회보』 37권 2호, 한국정치학회, 2003,

307-325쪽.

최기숙, 「‘성적’ 인간의 발견과 ‘욕망’의 수사학 : 18-19세기 야담집의 ‘기생 일화’를 중심으로», 『국제어문』 26권, 국제어문학회, 2002, 53-90쪽.

Georges Bataille, 조한경 역, 『에로티즘의 역사』, 민음사, 1998.

Jean Baudrillard, 배영달 역, 『유혹에 대하여』, 백의, 2002.

Marilyn Yalom., 이호영 역, 『순종 혹은 반항의 역사 아내』, 시공사, 2003.

Michel Foucault, 이규현 역, 『성의 역사 1-앎의 의지』, 나남, 1995.

Abstract

The Fantasy and the Cultural Politics of a Popular Novel
based on a magazine of the masses's entertainment of the 1950's
- focused on the Magazine for amusements *MyeongRang*

Kim, Hyun-Ju (Hanyang University)

A magazine produced cultural politics which the new age required, meeting the desire and ambition of public reader based on commercial applications since the modern age. While a magazine for amusements occupied extensively publication market and public reader in 1950's, *MyeongRang* (『명랑』) of them played a role in constructing the identity of a magazine for amusements as a public place of sexual opinion.

Especially, as a love affair novel in *MyeongRang* in 1950's targeted at young people in their twenties, it was discussing sexual fantasy as a discourse. In addition, while it made sexual fantasies popularize, it generated the certain cultural and political effect. However, there was subtle change in the way after and before 1958. In other words, as women found sexual-ego when crossing the borderline between 'inside' and 'outside' family in a love affair novel in the middle of 1950s, they were reproduced as an active subject that could have a right to a sexual Selfdetermination to decide.

As women felt an atmosphere of terror caused by sexual deviance by themselves and controlled their sexual desire, they got to 'inside' family. As the result, the readers enjoyed the sexual fantasy of a love affair novel without anxiety. On the other hand, just man was reproduced as a subject that had a right to a sexual self-determination to decide in a love affair novel in the late 50's. As the result, it was divided naturally woman into 'inside' and 'outside' family and derived strongly more the patriarchal ideology that compelled sex norms of woman. Therefore, it was ridiculed, and adjusted them to unconsciously accept the ideas that it is common sense and universal that the sexual desire of woman is collected to just man 'inside' family.

Like such that, *MyeongRang* recognized sex as spirit of freedom and challenge in the mid-50's, on the other hand, it cooperated to the cultural managed by the Korean Government and became as entertainment consumption goods of the images composed with faked reality, so it was eliminating spirit of liberalism inside sexual desire. Therefore, a love affair novel in *MyeongRang* constituted its identity as Kitsch on amusement offerings that commercialized sex and consumed, and played a part for making reading novel as a substandard goods, which promoted taste-class after modern times.

(Key Words : 1950's, a magazine for amusements, *MyeongRang* (『명랑』), reader, love affair novel, Sexual fantasy, cultural politics, Sexual public sphere, Self-discovery, a right to sexual self-determination, cultural management.

투고일 : 2013년 10월 29일 투고

심사일 : 2013년 11월 5~23일 심사

수정보완일 : 2013년 12월 3일 수정제출

제재확정일 : 2013년 12월 10일 제재확정